

저자를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인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 1990. 2. 15 자 결정

-6W 17/90 사건

적용법조

독일 저작구법 제 13 조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른 저자를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저작인격권의 발현이므로, 이는 법인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지방법원은 필름대여업체에 대하여 주장된 저자표시청구권을 기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1.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유한회사는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12 개의 동업자들과 함께 합작으로 C. 영화제작회사(이는 가처분절차에는 관계되어 있지 아니하다)와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해서 「moon44」라는 영화의 모델을 제작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Miniaturen」이라는 제목하에 「moon44」라는 영화의 신문안내 기사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게재할 저작권법상의 의무가 필름 대여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은 저작자의 인격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저작자 표시 청구권이 법인으로서의 신청인에 대하여까지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다(Fromm/Nordemann-Hertin, Urheberrecht, 7. Auflage, Rd. -N r.4 Zu §13 UrhG 참조) 그런데 신청인의 동업자들의 기여가 사실상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